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관계

김미정* 노혜숙
가톨릭대학교 아동·청소년·가족 상담센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이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정서, 행동 및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로 개인상담(예: 놀이치료)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1~6학년 상담사례를 수집하였고, 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3년차 이상의 상담자가 진행하는 사례로 제한하여 상담자 변인을 통제하였다. 아동-상담자 166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아동과 상담자는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좋은 치료 동맹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은 누가 치료 동맹을 평가했느냐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다소 달라졌다. 부/모 관계 특성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에 비해 치료 동맹을 더 잘 맺는 것으로 보고했다.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의 각 하위 요인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유대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치료적 협력은 아버지와의 친밀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동맹을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 요인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요어: 부모 관계, 치료 동맹, 치료 관계, 아동상담, 놀이치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성과가 입증되면서(Casey & Berman, 1985; Kazdin, Bass, Ayers, & Rodgers, 1990; Leblanc & Ritchie, 2001; Weisz, Weiss, Alicka, & Klotz, 1987; Weisz, Weiss, Han, Granger, & Morton, 1995)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은 치료 동맹 또는 치료 관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Shirk & Saiz, 1992; Shirk & Karver, 2003).

치료 동맹은 아동과 상담자 간 상호적인 관계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인관계의 원형인 부

* 교신저자: 김미정, E-mail: kimmj29@hanmail.net

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애착 및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주요 대상인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심리내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이후 대인 간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애착 이론가인 Bowlby (1977)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이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그들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과 다른 사람들이 반응적이고 양육적인지 또는 비반응적이며 무관심하고 해가 되는지와 같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발달되고, 이렇게 구축된 아동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여러 대인관계 경험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공통점을 정리했던 Bornstein(1993)은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유아의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심리내적 표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 동맹을 애착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했던 Pistole(1989)은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부모나 양육자처럼 내담자가 자신의 정동을 조절하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치료적 관계에는 내담자가 지닌 애착 기대와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Bowlby, 1988), 아동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재현할 수 있고 상담자는 이를 통해 아동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성인 및 청소년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들은 내담자가 보고한 애착이나 대상관계 특성이 치료 동맹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내담자의 애착 유형 및 수준과 치료 동맹의 관계

를 연구한 결과들(구정은, 1999; 김수정, 2005; 김순영, 1998; 김은숙, 2011; 김지민, 장재홍, 2009; 이정화, 1999; 황옥경, 2002; Kivlighan, Patton, & Foote, 1998; Mallinckrodt, Porter, & Kivlighan, 2005; Satterfield & Lyddon, 1995, 1998)은 연구마다 애착에 대한 개념화나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내담자가 안정애착을 이루었을 때에는 상담자와 좋은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반면에 불안정애착을 이룬 내담자는 상담자와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했다.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역시 치료 동맹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는데, 대상관계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이 상담자와 치료 동맹을 잘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진, 1998; 김은숙, 2011; 심혜숙, 임현지, 2001; Mallinckrodt et al., 2005; Piper, Azim, Joyce, McCallum, Nixon, & Segal, 1991).

다른 한편으로, 성인내담자가 회상한 부모와의 초기 애착 경험이 치료 동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김순영, 1998; 조영주, 1998; Mallinckrodt, 1991; Mallinckrodt, Coble, & Ganett, 1995)이 진행되었다. 앞서 기술된 연구들이 내담자가 현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인애착이나 대상관계 특성을 측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특성을 측정했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부모와의 유대질문지(Parental Bonding Instrument)는 내담자에게 16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을 회상하여 각각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 특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데 묶지 않고 분리시켜서 측정할 수 있다. 연구결과들은 예외적인 경우(조영주, 1998)를 제외하고는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좋은 돌봄을

받거나 과보호를 받지 않았을 때 좋은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마다 연구 대상 및 회기 통제와 같은 방법론상 차이가 있어 관련된 하위 요소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한 치료 동맹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 동맹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가 아동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얻어질 수 있는지를 비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부모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리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상담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드문 편이다.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미정, 이춘재, 2006)에서 성인상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이 연구는 어머니와의 관계만을 다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 관련 연구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편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방희정, 2009; 이희영, 최태진, 2007).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은 중첩되기도 하지만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Paquette(2004)는 부모 각각의 역할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개관 논문에서 ‘어머니-아동 애착 관계(the mother-child attachment relationship)’와 대비되는 ‘아버지-아동 활성화 관계(the father-child activation relationship)’를 제안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할 수

있게 격려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움으로써 세상을 향한 아동의 개방성(openness)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들(박원모, 천성문, 2008; 신지영, 2002)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이 아동의 친밀한 대인관계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치료적 관계에도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을 하나로 묶지 않고 분리시켜서 치료 동맹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이 관련되는 양상은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계 경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인지적 성숙이나 성에 따른 사회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서 연령차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혜, 1994; 황창순, 2006; Furman & Buhrmester, 1992).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거나(황창순, 2006)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지지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영향력(relative power)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박성혜, 1994)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로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했던 채혜연(2000)은 부모-자녀 관계가 자기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학

령후기 아동의 경우 남이는 어머니 관계에, 여아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성인 및 청소년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반영하는 애착과 대상관계를 측정하여 치료 동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Bowlby, 1958)를 의미하고, 대상관계는 자아 기능의 한 측면으로 개인이 외부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 방식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구조(Horner, 1982)를 의미한다. 이 두 개념은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심리내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의식적인 요소 뿐 아니라 무의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과 대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특성을 측정하여 치료 동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 동맹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하면,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자를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담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이 동일하게 혹은 서로 다르게 치료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양상이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치료 동맹은 아동과 상담자가 서로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므로 아동상담 연구자들(노혜숙, 김미정, 2010a; Kronmüller, Hartmann, Reck, Victor, Horn, & Winkelmann, 2003; Shirk & Saiz, 1992; Smith-Acuna, Durlak, & Kaspar, 1991)의 주장에 따라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치료 동맹은 상담자의 경력 및 전문적 경험(노혜숙, 이춘재, 김미정, 2007;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2005; 조영주, 1998; Mallinckrodt & Nelson, 1991)이나 상담회기(조영주, 1998; Parish & Eigel, 2003)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동상담에서 치료 동맹은 상담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담자가 아동내담자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좋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아동내담자 변인에 관한 연구는 상담자가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아동과 관계를 맺고 아동에게 적합한 상담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은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 관련이 있는가? 또한 이들의 관련성은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2.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 수준에 따라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에 차이가 있는가?
3.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예

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은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방 법

연구절차

서울, 경기 및 대전 지역의 아동상담 기관에서 정서, 사회성 및 행동상의 문제로 개인상담을 받고 있는 아동상담사례를 수집하였다. 아동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집단 형식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학습치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치료 동맹을 측정하기 위해 상담이 3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를 수집하였고, 한 명의 상담자가 여러 사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상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상담자가 취한 상담양식(예;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과 이론적 접근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구자는 아동상담 기관의 협조를 얻어 상담자들이 각각의 아동내담자와 어머니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상담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작성방법을 안내했고, 상담자가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아동과 상담자는 각각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봉투에 직접 담아 밀봉했고, 질문지는 밀봉한 채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166명(남아 97명, 여아 69명)으로 1학년 8명, 2학년 33명, 3학년 34명, 4학년 40명, 5학년 28명, 6학년 23명이었다. 상담자가

보고한 아동의 주 호소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관련 문제 84명, 행동관련 문제 43명, 사회성 관련 문제 16명, 중복 문제 10명, 기타 13명이었다. 상담이 진행된 회기수별로 살펴보면, 3~10회 34사례, 11~20회 31사례, 21~30회 26사례, 31~40회 20사례, 41~50회 19사례, 51~60회 8사례, 60회 이상 28사례이었다. 상담자가 평가한 상담진행 단계는 초기 단계가 38사례, 중기 단계가 102사례, 종결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26사례이었다.

상담자는 79명이 참여했고 모두 여성이었다. 상담자의 자격증 분포를 검토하면, 한국 심리학회 인증 1급 자격증(발달, 상담, 임상)을 소지한 상담자의 사례가 42사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의 사례는 110사례이었고,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의 사례는 9사례, 기타(미술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의 사례는 5사례이었다. 3년 이상 6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상담자의 사례는 88사례, 6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상담자의 사례는 56사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담자의 사례는 22사례이었다. 상담자들이 활용한 이론적 배경은 정신역동적 접근이 30사례, 아동중심 접근이 38사례, 인지행동적 접근이 5사례, 절충주의 접근이 93사례이었다.

본 연구에서 한 명의 상담자가 한 명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37사례이고 나머지 129사례는 중복 표집(2명의 사례를 제공한 상담자는 20명, 3명의 사례를 제공한 상담자는 9명, 4명의 사례를 제공한 상담자는 8명, 5명의 사례를 제공한 상담자는 2명, 6명의 사례를 제공한 상담자는 2명, 8명의 사례를 제공한 상담자는 1명)되었다.

연구도구

부모 관계 특성 질문지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한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NRI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교사, 친구, 조부모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관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된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총 11개의 하위 요인-도움(Instrumental aid), 만족감, 애정, 인정, 신뢰, 보살피기, 갈등, 처벌, 즐거움의 공유(Companionship), 주도권, 친밀감-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당 3개의 문항을 포함한 3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1개의 하위 요인은 5개의 요인, 즉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도움, 만족감, 애정, 인정, 신뢰, 보살피기 요인-, 부정적 관계(Negative interchange)-갈등, 처벌 요인-, 즐거움의 공유, 주도권, 친밀감으로 유목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선진(2006)이 번안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발달심리전문가 2인의 자문을 얻어 연구 대상에 적절하게 문항을 수정하였고,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이 있는 4개의 유목 요인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4개의 유목 요인은 주도권을 제외한 사회적 지지, 부정적 관계, 즐거움의 공유, 친밀감이었다. 또한 아동이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갈등과 처벌 요인의 문항은 역산하였고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특성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 관계 특성 질문지의 Cronbach α 계수는 .92이고, 사회적 지지 요인은 .93, 부정적 관계 요인은 .70, 즐거움의 공유 요인은 .83, 친밀감 요인은 .87로 나타났다. 어머니 관계 특성 질문지의 Cronbach α 계수는 .90이고, 사회적 지지 요인은 .91, 부정적 관계 요인은 .74, 즐

거움의 공유 요인은 .80, 친밀감 요인은 .82로 나타났다.

치료 동맹 질문지

아동내담자와 상담자가 지각한 치료 동맹을 측정하기 위해 노혜숙과 김미정(2010b)이 개발한 치료 동맹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유대와 치료적 협력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공감적 이해와 수용, 긍정 정서 경험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의사소통을 위한 협력이 포함된다. 총 16개의 문항은 모두 긍정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4점 리커트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용과 상담자용이 있다. 상담자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는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항(예; 아동용-나는 선생님께 내 속마음을 모두 얘기할 수 있다, 상담자용-아동은 상담자에게 속마음을 얘기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의 하위 요인도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용 치료 동맹 질문지의 Cronbach α 계수는 .89이고, 정서적 유대 요인은 .86, 치료적 협력 요인은 .82이었다. 상담자용 치료 동맹 질문지의 Cronbach α 계수는 .89이고, 정서적 유대 요인은 .86, 치료적 협력 요인은 .83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분포를 밝히기 위해 빈도를 구하고,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아동 및 상담

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을 조사한 후에 아동의 학년(저학년: 1~3학년, 고학년: 4~6학년)과 성(남, 여)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한 뒤 상관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 특성 점수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서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 간 사후분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의 하위 요인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에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구분한 네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치료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회기수를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 이를 투입하고 2단계에 부모 관계 특성의 하위 요인을 투입하였다.

결 과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아동 및 상담

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은 아동이 보고한 치료 동맹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r=.31, p<.001$, 모 $r=.36, p<.001$)를 더 잘 맺고 치료적 협력(부 $r=.34, p<.001$, 모 $r=.40, p<.001$)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그 관련 정도는 아동이 보고한 치료 동맹보다 낮았다. 또한 치료 동맹의 하위 요인에 따라 관련된 부모 관계 특성이 달랐는데, 정서적 유대는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r=.19, p<.05$)과 치료적 협력은 아버지와의 관계 특성($r=.15, p<.05$)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이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를 더 잘 맺는다고 보고했던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은 치료적으로 더 잘 협력한다고 보고했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관련성이 아동의 학년(저학년/고학년)과 성(남/여)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년과 성에

표 1.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 간 상관

	아동이 지각한 치료 동맹		상담자가 지각한 치료 동맹	
	정서적 유대	치료적 협력	정서적 유대	치료적 협력
부 관계	.31***	.34***	.13	.15*
모 관계	.36***	.40***	.19*	.11

* $p<.05$, ** $p<.01$, *** $p<.001$

표 2.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른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 간 상관

		아동이 지각한 치료 동맹		상담자가 지각한 치료 동맹	
		정서적 유대	치료적 협력	정서적 유대	치료적 협력
남자 저학년 (n=44)	부 관계	.43**	.39**	.16	.06
	모 관계	.56***	.46**	.24	.14
남자 고학년 (n=53)	부 관계	.17	.26	.25	.35**
	모 관계	.27*	.38*	.28*	.24
여자 저학년 (n=31)	부 관계	.38*	.34	-.05	.14
	모 관계	.43*	.17	-.21	.03
여자 고학년 (n=38)	부 관계	.39*	.37*	.06	.04
	모 관계	.25	.38*	.10	-.10

* $p < .05$, ** $p < .01$, *** $p < .001$

따라 구분한 네 집단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이 보고한 치료 동맹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 간 관계는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유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저학년의 경우에는 남아(부 $r = .43$, $p < .01$, 모 $r = .56$, $p < .001$)와 여아(부 $r = .38$, $p < .05$, 모 $r = .43$, $p < .05$) 모두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과 정서적 유대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고학년의 경우에는 성에 따라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 남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이($r = .27$, $p < .05$), 고학년 여아는 아버지와의 관계 특성이($r = .39$, $p < .05$) 정서적 유대와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하위 요인인 치료적 협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성에 따라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의 경우 남이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과 치료적 협력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부 $r = .39$, $p < .01$, 모 $r = .46$, $p < .01$)이 있었던 반면 여아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의 경우 남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38$, $p < .01$)이 있었던 반면 여아는 양쪽 부모 관계 특성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부 $r = .37$, $p < .05$, 모 $r = .38$, $p < .05$).

집단별로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 간의 상관은 고학년 남아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고학년 남아들이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를 더 잘 맺는다($r = .28$, $p < .05$)고 보고했던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고학년 남아들은 치료적으로 더 잘 협력한다($r = .35$, $p < .01$)고 보고했다.

표 3. 부모 관계 특성 수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치료 동맹의 차이

구 분	부관계고, 모관계고 (1집단) (n=60)	부관계고, 모관계저 (2집단) (n=22)	부관계저, 모관계고 (3집단) (n=22)	부관계저, 모관계저 (4집단) (n=62)	F	사후검증 Scheffe
정서적 유대	32.40	30.31	31.50	28.32	9.78***	1 > 4 3 > 4
치료적 협력	21.48	19.63	20.04	17.00	10.75**	1 > 4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관계 특성 수준에 따른 치료 동맹의 차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 수준에 따라 치료 동맹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와의 관계 특성 점수와 모와의 관계 특성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부와 모의 관계 특성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1집단), 부와의 관계 특성 점수는 높지만 모와의 관계 특성 점수는 낮은 집단(2집단), 부와의 관계 특성 점수는 낮지만 모와의 관계 특성 점수가 높은 집단(3집단), 부와 모의 관계 특성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원 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동이 보고한 치료 동맹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치료 동맹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유대($F(3,162)=9.78, p < .001$)와 치료적 협력($F(3,162)=10.75, p < .01$) 모두에서 1집단이 4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치료 동맹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모두 긍정적인 집단의 아동들이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모두 부정적인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더 잘 맺고 치료적 협력을 더 잘 한다고 보고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

서적 유대 요인에서는 3집단과 4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와의 관계 특성 점수가 낮을 때에는 모와의 관계 특성 점수가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정서적 유대를 더 잘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집단과 4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모와의 관계 특성 점수가 낮을 때에는 부와의 관계 특성 점수에 따라 정서적 유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계 특성이 치료 동맹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의 하위 요인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회기수를 통제 한 후에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이상인 경우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상담회기수를 통제하였을 때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정서적 유대를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의 하위 요인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보고한

정서적 유대 변량의 19%를, 상담자가 보고한 정서적 유대 변량의 7%를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만족감을 느끼고 인정과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구축했던 정도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는 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적 협력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의 하위 요인은 아버지와의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보고한 치료적 협력 변량의 17%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적 협력 변량의 3%를 설명하였다.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치료적 협력 변량의 5%를 추가로 설명했다. 즉 아동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치료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의 하위 요인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이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년과 성에 따라 구분한 네 집단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담회기수를 통제한 후에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중

의미미한 것만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이 보고한 치료 동맹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 하위 요인은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가 보고한 치료 동맹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변인은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학년 남아의 경우 정서적 유대와 치료적 협력을 예언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였다. 이는 정서적 유대 변량의 41%를, 치료적 협력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만족감을 느끼고 인정과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구축했던 정도는 아동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년 남아가 보고한 정서적 유대에는 어머니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정도가, 치료적 협력에는 어머니와의 친밀감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는 정서적 유대 변량의 12%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치료적 협력 변량의 23%를 설명하였다.

여아가 보고한 치료 동맹을 유의미하게 예언하

표 4. 치료 동맹에 대한 부모 관계 특성 하위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β	t	R^2	ΔR^2	F	
아동 지각	정서적 유대	어머니 -사회적 지지	.43	13.67	.19	.19	37.56***
		아버지 -친밀감	.41	5.77	.17	.17	33.33***
	치료적 협력	어머니 -친밀감	.26	3.12	.22	.05	22.56***
		아버지 -친밀감	.26	3.12	.22	.05	22.56***
상담자 지각	정서적 유대	어머니 -사회적 지지	.26	3.46	.07	.07	12.01*
	치료적 협력	아버지 -친밀감	.17	2.21	.03	.03	4.92*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른 치료 동맹에 대한 부모 관계 특성 하위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저학년 집단>			β	t	R^2	ΔR^2	F
아동 지각	정서적 유대	어머니 -사회적 지지	.64	5.30	.41	.41	28.00***
	치료적 협력	어머니 -사회적 지지	.46	3.26	.21	.21	10.65**
<남학생 고학년 집단>			β	t	R^2	ΔR^2	F
아동 지각	정서적 유대	어머니 -즐거움의 공유	.35	2.66	.12	.12	7.09**
	치료적 협력	어머니 -친밀감	.48	3.90	.23	.23	15.25***
상답자 지각	정서적 유대	어머니 -사회적 지지	.32	2.38	.10	.10	5.68*
	치료적 협력	아버지 -사회적 지지	.34	2.56	.11	.11	6.51*
<여학생 저학년 집단>			β	t	R^2	ΔR^2	F
아동 지각	정서적 유대	어머니 -사회적 지지	.57	3.71	.33	.33	13.79**
	치료적 협력	아버지 -친밀감	.48	2.90	.23	.23	8.40**
<여학생 고학년 집단>			β	t	R^2	ΔR^2	F
아동 지각	정서적 유대	아버지 -사회적 지지	.45	3.01	.21	.21	9.07**
	치료적 협력	어머니 -친밀감	.48	3.20	.23	.23	10.26**
상답자 지각	치료적 협력	상담회기	.33	2.09	.11	.11	4.37*

* $p < .05$, ** $p < .01$, *** $p < .001$

는 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여아의 경우, 정서적 유대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변량의 33%를, 치료적 협력은 아버지와의 친밀감 정도가 변량의 23%를 설명하였다. 반면 고학년 여아의 경우, 정서적 유대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가 변량의 21%를, 치료적 협력은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변량의 23%를 설명하였다.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에 영향을 주는 부모 관계 특성 하위 요인은 고학년 남아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서적 유대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변량의 10%를, 치료적 협력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가 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즉 상담자는 고학년 남아들이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때에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치료적 협력을 구축할 때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논 의

아동상담에서 치료 동맹은 상담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치료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내담자 변인에 관한 연구는 상담자가 아동을 이해하고 좋은 치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상담 현장에서 사례를 수집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이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은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 관련이 있었다. 즉 아동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를 맺고

치료적 협력을 하면서 좋은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및 청소년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내담자의 성인애착, 대상관계 수준 및 회상한 부모와의 초기 애착 경험이 내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 관련이 있었다는 결과(구정은, 1999; 김수정, 2005; 김순영, 1998; 김순진, 1998; 김은숙, 2011; 김지민, 장재홍, 2009; 심혜숙, 임현지, 2001; 이정화, 1999; 황옥경, 2002; Kivlighan et al., 1998; Mallinckrodt et al., 1995; Mallinckrodt et al., 2005; Piper et al., 1991; Satterfield & Lyddon, 1995, 1998)와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 관련이 있었다는 결과(김순영, 1998; 김순진, 1998; 심혜숙, 임현지, 2001; 이정화, 1999; Mallinckrodt, 1991; Piper et al., 1991)와 일치한다. 또한 학령후기 아동내담자의 모-자 관계 표상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아동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김미정과 이춘재(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모와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아동상담에서 치료 동맹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과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아동이 상담자와 치료 동맹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상담자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전략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나누었던 경험을 재현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들을 점검하고 해결되지 못한 욕구나 갈등을 다루면서 교정적 체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이 치료 동맹과 관련된 정도와 양상은 치료 동맹을 누가 평가했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졌다. 관련된 정도는 치

료 동맹을 상담자가 평가했을 때보다 아동이 평가했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동이 평가했을 때에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 모두가 정서적 유대 뿐 아니라 치료적 협력과 관련이 있었지만, 상담자가 평가했을 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특성은 치료적 협력과,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은 정서적 유대와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 동맹에 대한 아동과 상담자의 지각 간 상관이 높지 않으므로 아동과 상담자의 지각이 대체될 수 없고 양쪽의 관점을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아동상담 연구자들(Shirk & Saiz, 1992; Smith-Acuna et al., 1991)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치료 동맹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구축해나가는 것이지만 이를 평가할 때에는 각자 중요하게 고려하는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 내담자는 친밀한 사적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s)를 평가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치료 동맹을 평가하는 반면, 상담자는 변화에 대한 동기나 내성 능력과 같은 임상적 측면에 기초하여 치료 동맹을 평가할 수 있다(Mallinckrodt, 1991).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아동은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 간의 관련성을 상담자보다 더 높게 지각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 간 관련성은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보고한 치료 동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저학년 남아의 경우에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 모두가 정서적 유대 및 치료적 협력과 관련이 있었지만, 저학년 여아의 경우에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정서적 유대와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학년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이,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의 관계 특성이 정서적 유대 및 치료적 협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치료 동맹 뿐 아니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적응에 유사한 기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대한 지각과 사회적 능력 및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경숙, 박진아, 2004; 이정미, 이양희, 2007; 채혜연, 2000)에서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고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정미와 이양희(2007)는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아동이 남아이고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모 간 갈등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저학년 남아의 경우 부모-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이 치료 동맹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지만 고학년 남아의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줄어들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로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여 사회적 선호도와 관계를 연구한 채혜연(2000)은 부모-자녀 관계가 자기개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학령후기 남아는 어머니 관계가 아버지 관계보다, 반대로 여아는 아버지 관계가 어머니 관계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는 고학년 아동의 경우 동성부모보다는 이성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치료 동맹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치료 동맹을 관련지어 살펴볼 때에는 아동의 성과 학년을 고려해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고학년 남아의 경우에만 두 변인 간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는 고학년 남아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를 잘 맺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치료적 협력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동과 상담자 간 차이는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했을 때에는 아동의 보고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상담자의 보고에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지각한 아동은 양쪽 부모 모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지각한 아동 보다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잘 맺고 치료적 협력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아동이 양쪽 부모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희영, 최태진, 2007; Verschueren & Marcoen, 1999)에 의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되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아동이 한쪽 부모와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지각했을 때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지각했을 때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를 더 잘 맺는 것으로 보고한 점은 아버지 애착보다 어머니 애착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모성 강점 가설(maternal strength hypothesis) (Botens, Shaver, & Levy, 1991; Brennan & Shaver, 199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초기 애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 경

험이 정서적 유대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의 각 하위 요인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 하위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정서적 유대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요인이, 치료적 협력은 아버지의 친밀감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만족감을 느끼고 인정과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구축했던 경험은 상담자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데, 아동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비밀을 나누었던 경험은 상담자와 치료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어머니는 아동을 진정시키고 정서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반면 아버지는 아동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여 낯선 상황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다(Paquette, 2004).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은 세상과 정서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은 세상을 향한 아동의 개방성(openness)을 발달시켜 아동이 세상과 부딪히며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이 치료 동맹에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아동상담 장면에서 치료 동맹을 구축할 때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양쪽 부모를 한데 묶거나 어느 한쪽 부모만을 대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양쪽 부모 모두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

아가 아동이 각각의 부모와 얼마나 좋은 혹은 나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의 각 하위 요인을 가장 잘 예언하는 부모 관계 특성 하위 요인은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보고한 치료 동맹을 예언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어머니와의 관계 특성이 정서적 유대와 치료적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달랐다. 저학년은 사회적 지지가, 고학년은 즐거움의 공유 및 친밀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에는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양쪽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정서적 유대와 치료적 협력에 영향을 주는데 학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유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저학년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였다면 고학년에서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였고, 치료적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저학년에서는 아버지의 친밀감이었다면 고학년에서는 어머니의 친밀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을 예언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고학년 남아의 경우에만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치료 동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유대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치료적 협력은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아동상담 현장에서 사례를 수집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아동 및

상담자가 보고한 치료 동맹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담자가 아동과 치료 동맹을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아동내담자의 부모-자녀 관계를 탐색하면서 아동에게 적합한 상담전략을 구상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시켜 동시에 살펴보고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관련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치료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내담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가 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상담 경력 3년차 이상의 상담자가 진행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비해 상담자 변인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이다. 치료 동맹은 아동과 상담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므로 상담자 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아동내담자 변인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회기를 통제하여 회귀 분석을 했지만 상담을 통해 부모 관계 특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치료 동맹도 상담 과정 동안 고정적이기 보다는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Golden & Robbins, 1990; Horvath & Luborsky, 1992)이 있으므로 상담이 진행되면서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관계 특성 질문

지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학령초기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제한점이 있다. 더불어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과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면을 가질 수 있음에도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 경험 혹은 애착과 대상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이 방법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사회적 바람직성, 기억 왜곡, 방어적인 응답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이나 면접법이 포함된 연구방법을 병행하거나 질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발달문제를 가진 아동을 제외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달상 문제를 가진 아동이나 학령기 이외의 다른 발달적 시기에 있는 아동 및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향후 발달적으로 다른 시기에 있는 아동이나 발달 및 특수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구정은 (1999). 내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정, 이춘재 (2006). 아동의 모-자 관계 표상, 문제행동과 상담초기 치료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285-302.
- 김수정 (2005). 상담자, 내담자 애착유형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영 (1998). 내담자의 부모 유대 및 성인 애착 능력이 상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진 (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동맹 및 상담중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숙 (2011). 상담자와 내담자의 애착과 대상관계 수준에 따른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민, 장재홍 (2009).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과 상담기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349-2365.
- 노혜숙, 김미정 (2010a). 아동상담에서의 치료 동맹 관련 변인: 아동의 성, 연령 및 문제행동 심각도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4(2), 15-28.
- 노혜숙, 김미정 (2010b). 아동용 치료 동맹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41-161.
- 노혜숙, 이춘재, 김미정 (2007). 상담초기 아동의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 전문적 경험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4), 1557-1571.
- 박성혜 (1994).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에 있어서 연령과 성차.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원모, 천성문 (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41-59.
- 방희정 (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 (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

- 회지: 여성, 14(1), 67-91.
- 신지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수준, 유능감수준 및 교육관계의 질적 특성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심혜숙, 임현지 (2001). 상담자-내담자 대상관계와 작업동맹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2(2), 313-326.
- 이경숙, 박진아 (2004). 학령후기 아동의 성과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63-81.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 이정화 (1999). 내담자의 애착유형과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영, 최태진 (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0(1), 23-41.
- 정선진 (2006).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사회적 행동 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주 (1998). 내담자의 초기 애착과 상담자의 상담 경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혜연 (2000).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2005). 치료자의 전문적 경험과 공감능력이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503-521.
- 황옥경 (2002). 내담자의 애착유형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작업동맹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연구, 7, 115-136.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Bornstein, R. E. (1993).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psychopathology: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In J. M. Masling & R. F. Bornstein(Ed), *Psychoanalytic perspectives on psychopat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tens, D. D., Shaver, P. R., & Levy, K. N. (1991). *Styles of romantic attachment and parental representations*. Unpublished manuscrip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therapy*, 16, 252-260.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Aetiology and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3).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1, 161-175.
- Casey, R. J., Berman, J. (1985). The outcome of psychotherapy with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98(2), 388-400.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olden, B. R., & Robbins, S. B. (1990). The working alliance within time-limited therapy: A case 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6), 476-481.
- Horner, A. J. (1982). *Object relations and the developing ego in therapy*. Jason Aronson, New York.
- Horvath, A. O., & Luborsky, L. (1992). The role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61-673.
- Kazdin, A. E., Bass, D., Ayers, W. A., & Rodgers, A. (1990). Empirical and clinical focus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29-740.
- Kivlighan, D. M. Jr., Patton, M. J., & Foote, D. (1998). Moderating effects of client attachment on counselor experience-working alliance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74-278.
- Kronmüller, K. T., Hartmann, M., Reck, C., Victor, D., Horn, H., & Winkelmann, K. (2003). Die therapeutische beziehung in der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ie: Evaluation einer deutschen version der therapeutic alliance scales for children. *Zeitschrift für Klinische Psychologie und Psychotherapie*, 32(1), 14-23.
- Leblanc, M., & Ritchie, M. (2001). A meta-analysis of play therapy outcome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4(2), 149-163.
- Mallinckrodt, B. (1991). Clients'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form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01-409.
- Mallinckrodt, B., Coble, H. M., & Gantt, D. L. (1995). Working alliance, attachment memories, and social competencies of women in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79-84.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3-138.
- Mallinckrodt, B., Porter, M., & Kivlighan, D. M. (2005).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depth of in-session exploration and object relations in brie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1), 85-100.
- Paquette, D. (2004). Theorizing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Mechanism and developmental outcomes. *Human development*, 47, 193-219.
- Parish, M., & Eagle, M. N. (2003). Attachment to the therapist. *Psychoanalytic Psychology*, 20(2), 271-286.
- Piper, W. E., Azim, H. F. A., Joyce, A. S., McCallum, M., Nixon, G. W. H., & Segal, P. S. (1991). Quality of object relations versus interpersonal functioning as predictors of therapeutic alliance and psychotherapy outcome.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7), 432-438.
- Pistole, M. C. (1989). Attachment: Implications fo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 Development*, 68(2), 190-193.
- Satterfield, W. A., & Lyddon, W. J. (1995). Client attachment and perception of the working alliance with counselor traine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187-189.
- Satterfield, W. A., & Lyddon, W. J. (1998). Client attachment and the working alliance.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1(4), 407-415.
- Shirk, S. R., & Karver, M. (2003). Prediction of treatment outcome from relationship variables in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452-464.
- Shirk, S. R., & Saiz, C. C. (1992). Clinical, empi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child psychotherapy. Special issue: developmental approaches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4), 713-728.
- Smith-Acuna, S., Durlak, J. A., & Kaspar, C. J. (1991). Development of child psychotherapy process measur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2), 126-131.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s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1), 183-201.
- Weisz, J. R., Weiss, B., Alicke, M. D., & Klotz, M. L. (1987).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Meta-analytic findings for clinicia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4), 542-549.
- Weisz, J. R., Weiss, B., Han, S. S., Granger, D., A., & Morton, T. (1995). Effects of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revisited: A meta-analysis of treatment outcome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50-468.
-

1차 원고 접수: 2011. 07. 13
수정 원고 접수: 2011. 08. 21
최종 게재 결정: 2011. 08. 22

The Relations among the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herapeutic Alliance

Mi-Jeong Kim Hye-Sook Roh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hild Adolescent Family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between the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therapeutic alliance.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166 elementary school children clients(1st-6th grade) and their counselor. The counselor has career more than three years and has got the certificate for professional counselor. As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ore child got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more child and their counselor reported positive therapeutic alliance. The difference of therapeutic alliance perceived by child was significantly connected with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child, who had high level of relationships with father and mother than that of low level of relationships, reported more positive therapeutic allia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mother's social-support predicted the emotional-bond and intimacy with father predicted therapeutic collaboration. Children's gender and grade had the difference of the prediction variables.

Keywords: parent-child relationship, therapeutic alliance, therapeutic relationship, child counseling, play therapy